

한국산 넙치과(Paralichthyidae) 어류 1신종 후보

이충렬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서론

우리나라의 해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 해역에 널리 서식하고 있는 가자미목 어류는 분화 적응되어 오는 과정에서 형태적으로 특이하게 진화되었다. 이들 어류는 발생 초기에는 좌우 대칭이었으나 길이가 10~25 mm 사이가 되었을 때 한쪽 눈이 반대편으로 이동하면서 눈이 없는 쪽으로 헤엄을 치게 된다(Amaoka et al., 1984; Nelson, 1994). 가자미목 어류의 분류는 다양한 형질을 적용하여 분류하고 있으나, 최근 Nelson (1994), Nakabo (2002), 김 등(2005)은 눈의 위치, 배지느러미의 기조 수 및 크기, 좌우 아가미막의 유합 유무, 무안측의 특성 존재 상태 등을 중요한 형질로 사용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출현하고 있는 가자미목 어류 중에 넙치과 Paralichthyidae 어류는 모두 3속 5종이었고(김 등, 2005), 일본에서는 3속 10종(Nakabo, 2002), 중국에서는 4속 14종(Chen and Zheng, 1987)이 보고되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출현하는 가자미목 어류 중 넙치과 어류 1개체를 채집하여 분류한 결과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미확인 종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표본에서 나타나는 형태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분류학적 주요 형질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자한다.

재료 및 방법

본 표본은 2005년 8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 어시장에서 체장 279.6 mm되는 활어 1개체를 채집하였다. 표본의 주요 측정은 Hubbs and Lagler (1964)의 방법을 따랐고, 지느러미의 기조

수, 척추골수 등은 Soft x-ray 사진을 찍어 계수하였다. 본 표본의 동정과 분류학적 형질 분석은 Masuda et al. (1984), Chen and Zhen(1987), Shen(1990), Nakabo(2002), 김 등(2005)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과 및 요약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위치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어항에서 넙치과 어류 1개체(체장 279.6 mm)를 강릉 앞 바다에서 채집한 것을 동정한 결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미확인 종으로 나타났다.

본 종은 다른 가자미목 어류와 마찬가지로 심하게 측편되었으나, 체고가 매우 높고(체장의 53.4%), 입이 위로 향하고 있어 체형이 유사분류군들과는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좌우 측선의 위치는 뚜렷하나 측선공이 확실하지 않다. 체표에는 즐린으로 덮여 있으며 앞쪽으로는 양안 중간까지 나 있고, 눈 주위의 앞쪽에는 비늘이 없으나 상악의 끝부분에는 조밀하게 나 있다. 등지느러미 연조는 83, 뒷지느러미는 62, 새파수는 21, 척추골수는 31, 가슴지느러미는 12~13개이다.

본 종이 살아있을 때는 체색은 지느러미를 포함하여 진한 갈색으로 거의 균일하게 분포된 가운데 동공보다 작은 검은 점무늬가 상하로 4~5개씩 나 있다. 반면 꼬리지느러미는 특별한 무늬없이 흑갈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종은 체형, 입의 위치, 높은 체고, 복추골 수 및 불명확한 측선공 등의 분류학적 주요 형질에서 이미 보고된 유사 종들과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Cheng, Q. and B. Zheng. 1987. Systematic Synopsis of Chinese Fishes. Science Press, Beijing, 1458 pp.
- Kim, I.S., Y. Choi, C.L. Lee, Y.J. Lee, B.J. Kim and J.H. Kim. 2005. Illustrated Book of Korean Fishes. Kyohak Pub., Seoul, pp. 469-490.
- Nakabo, T. 2002. Fishes of Japan, with pictorial keys to the species. English ed., II, Tokai University Press, Tokyo, pp. 1354-1392.